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음 6월 18일) 제16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에 '늦장 대응'에 진담

조선 · 기자재산업 업종 전환 유도

산자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지역에 전북 포함

군산시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등으로 전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전북경제의 버팀목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위기에 '늦장 대응' 비난을 받던 전북도가 조선·기자재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신산업 추진 등의 방식으로 뒤늦게 도내 조선업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이 밀집된 군산시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규제프리존 관련사업(탄소·농생명)육성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이 중점인 이번 대책이 조선업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경남·부산·울산·전남의 4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했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지역경제 대책'에 관련한 신산업 계획 수립'에 전북을 포함시키기로 해서 5개 시·도로 확대했다.

2015년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4년 고용유발이 5,700여명에 이르고 관내 141개 업체와 생산지원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박수출액은 전북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등 전북 수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변동이 경남(1.0%p)에 이은 2번째(0.9%) 기록하는 등 전북 조선업은 지역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조선업은 확대를 받아 최근 경남 등 4개 시·도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대책부 공동건의문'에서 제외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이는 도가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에 '늦장 대응'을 펼쳤다는 비난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맛” 살린 당신께” 전북도와 농식품부, 외교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주최하여 2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6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시상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1등을 차지한 중국의 리준에게 1등 시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농식품부, 외교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주최하여 2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6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시상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1등을 차지한 중국의 리준에게 1등 시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산자부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신산업 계획 수립 정부 대책에 전북을 포함시키므로 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신산업 추진반을 구성해 조선·기자재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를 중심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을 탄소,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규제프리존 연계 사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BIR&D)에 3억의 추경 예산을 반영한다. 또한 조선·기자재산업의 업종 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하고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를 지역별(총 18억원)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도내 조선·기자재 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자금지원 관련기관 간담회는 오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다. 신용보증재단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에 최대 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기업은행 등 대출취급 금융회사 7개사는 지원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다.

고용지원 측면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고 고용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직업훈련비 지원이 확대되며 맞춤형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이 그간 군산조선소 위기에 대해 기재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대처해 왔으나 이번이 왔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도내 전역 '뽕통더위' 기승

무더운 날씨로 전북도내 대부분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전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을 보였다.

2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익산 34도를 비롯해 정읍 33.8도, 전주 33.3도, 부안 33.2도, 군산 32.8도, 김제 32.7도 등 도내 전역의 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이번 더위는 오는 23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에 한 풀 꺾였다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낮 시간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며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은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도민들이 공감하는 행복한 인권도시로

도, 인권보호 위한 계획 수립

인권헌장 제정 도민위 구성 내년 인권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공감정책 강화

전북도가 전북을 도민 존엄성과 공감의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지개를 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민 인권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 인권기본계획 주요 핵심 사업은 내년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으로 시작된다.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인권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상담소사를 하게 되며 2017년부터 10개의 인권 핵심 사업과 20개 중장기적인 핵심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도의 인권기본계획은 전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도민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 등의 절차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난 5일 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은 도민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 함으로 시작되며,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에 ▲인권도시 기반조성과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공감인권정책 강화, ▲도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도는 인권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내년에 '인권헌장 제정 도민위원회'를 구성, '전북인권헌장'을 제정해

2018년에 선포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의 수립으로 '전북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 및 조사구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권보호팀과 장애인 인권상담 및 조사전담팀, 인권정책 교육팀을 올해 하반기 도청내 조직개편에 반영해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14개 시군 및 복지시설의 방문형 인권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인권영향 평가의 도입을 준비토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 공감인권정책 강화'다.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과 무장예비군 인종(배우프리) 시범운영, 복지시설 운영위 인권전문가 위원회 도입, 복지시설의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작성, 인권피해자 보호센터 운영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이후 인권위원회를 강화하고, 도민인권포럼을 운영해 도민참여형 인권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사건 모니터링과 인권조사에 따른 조치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컨설팅, 인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민인권포럼을 운영하고, 14개 시군 인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북인권지도를 개발해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은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센터의 설치와 30개 핵심사업의 추진은 도민 인권체감도 향상과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메일 INDEX

2면 전북 쟁점사업 예산 삭감 난항 예고

4면 4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남원에촌
NAMWONYECHON BY KENSTON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켄스턴'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선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켄스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